

제384회 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업 무 현 황

2021. 2. 17.



금융감독원

목 차

I . 일반 현황	1
II . 금융산업 및 시장 동향	4
1. 국내 금융산업 동향	4
2. 금융시장 동향	8
III .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0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11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15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18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21
【참고자료】	
I . 주요 금융통계	27
II . 집행간부 등 명단	36

I. 일반 현황

1 목적 및 기능

가. 설립 경과

-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의 은행 감독원,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을 통합하여 금융감독원 설립('99.1.2.)
-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분리('08.2.29.)

나. 설립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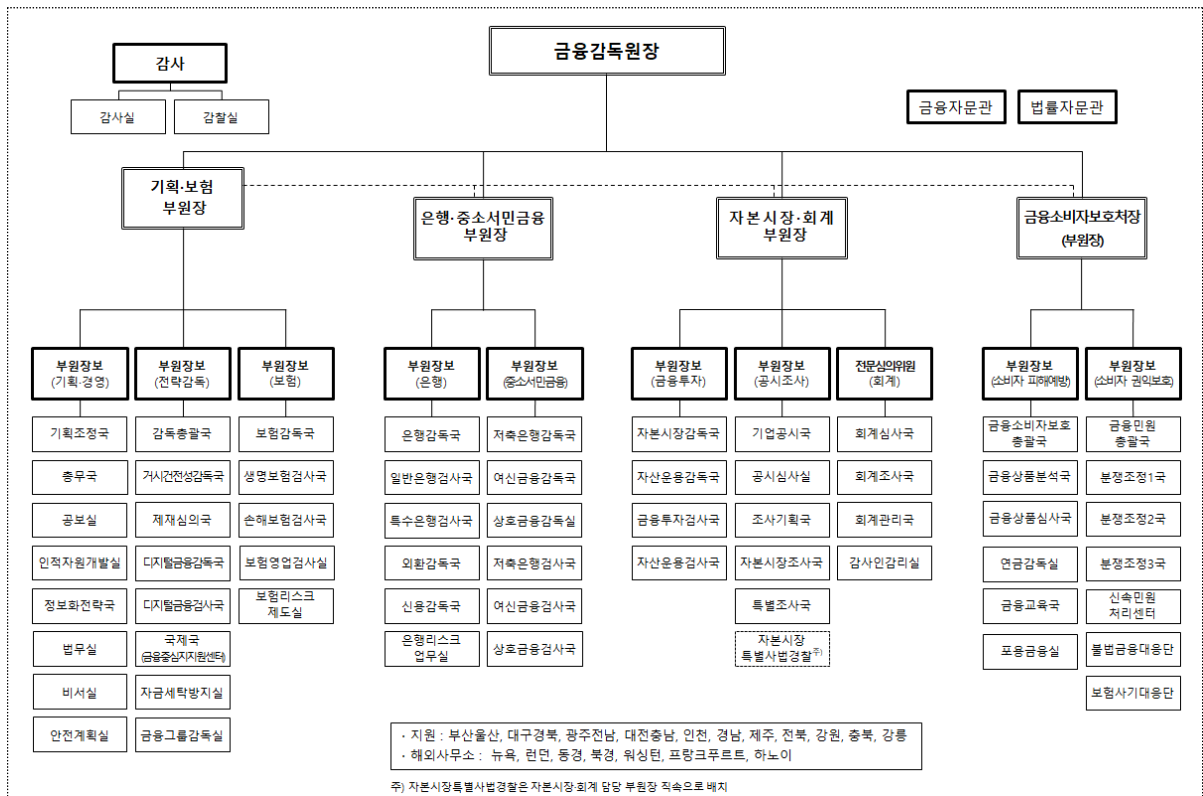
다. 주요 기능

- 금융회사의 업무·재산상황에 대한 검사, 제재 및 소비자보호
-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위탁에 의한 금융회사 감독, 증권 불공정거래 조사 및 회계감리
- 금융위원회 및 소속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2 조직, 인력 및 예산

가. 조직 [2.24. 개편후 기준]

- 금융감독원은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62개 부서로 구성
 -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원장 직속의 準독립기구로 설치(12.5월)하여 소비자보호 업무 강화 및 감독·검사 업무와의 균형을 도모



나. 인력 및 예산

- (인 력) '21.2.10일 현재 원장, 감사, 부원장(4인), 부원장보(9인), 전문심의위원 등 집행간부 16명 및 직원 2,026명*

* 외부경력직이 364명(현원의 18.0%)이며 변호사(146명), 공인회계사(410명), 보험계리사(40명), 박사(59명) 등 전문인력이 901명(현원의 44.5%)

- (예 산) '21년도 금융감독원 예산은 3,660억원

- 수입예산은 감독분담금(72.5%), 유가증권 발행분담금(23.8%) 등으로 조달
- 지출예산은 인건비(65.2%), 경비(21.7%) 등으로 구성

3 검사대상기관 현황

□ 검사대상기관은 금융지주(10), 은행부문(55), 중소서민금융부문(3,385), 보험부문(60), 금융투자부문(2,045) 등 총 5,983개사('20년말 현재)

검사대상기관 현황¹⁾ ('20년말 현재)

(단위 : 개사)

구 분	기관수	검사대상기관
금융지주	10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 메리츠금융지주,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JB금융지주
은행부문	55	시중은행(6), 지방은행(6), 인터넷전문은행(2), 특수은행(5), 외국은행 국내지점(36)
중소서민금융 부 문	3,385	상호저축은행(79), 저축은행중앙회, 농업협동조합(1,118), 수산업협동조합(90), 산림조합(138), 신용협동조합(879),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카드사(8), 할부금융(23), 리스(26), 신기술사업금융(63), 대부업자(P2P연계대부업자 제외, 954) ²⁾ , 여신금융협회, 한국대부금융협회
보험부문	60	생명보험사(24), 손해보험사(18), 외국손해보험사 국내지점(13),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화재보험협회, 보험연수원, 보험개발원
금융투자 부 문	2,045	증권회사(45),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11), 선물회사(4), 신용평가회사(4), 채권평가회사(4), (전업)집합투자기부평가회사(4), 부동산투자회사(CR REITs 등)(276), 증권사(1), 자금중개·외국환중개회사(9), 자산운용회사(326), 투자자문회사(220), 사모투자전문회사(79), (전업)일반사무관리회사(8), 선박운용회사(5), 선박투자회사(299), 부동산신탁사(14), 한국포스증권,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한국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9), 우정사업본부
기타부문	428	소액해외송금업자(28), 전자금융업자(120) ³⁾ , 신용정보업자(29), 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부가통신업자(27), 한국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⁴⁾ , 혁신금융사업자(45) ⁵⁾ , 지정대리인(11) ⁶⁾ , P2P연계대부업(163)
합 계	5,983	

주 1) 유통계카드사(2), 보험대리점(31,067), 보험계리업(21), 손해사정업(1,419), 보험중개사(145), 역외투자자문회사(193), 회계법인(164), 사모M&A펀드(3) 등 33,014개 제외

2)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37개사 중복 제외(부가통신업자, 증권사, 자산운용사, 소액해외 송금업자 부문에 포함)

3) 금전대부업(36), 대부채권매입추심업(297), 금전대부·대부채권매입추심업(621)

4)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퇴직연금사업자 48개사 중복 제외(은행, 보험, 금융투자, 기타 부문에 포함)

5)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58개사 중복 제외(은행, 중소서민금융, 보험, 전자금융업자 부문에 포함)

6) 부문별 기관수 산정시 13개사 중복 제외(혁신금융사업자(8), 전자금융업자(5) 부문에 포함)

II. 금융산업 및 시장 동향

1 국내 금융산업 동향

가. 은행

◆ 은행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 수익성 경영지표 모두 양호한 수준 유지

- (자산건전성) 고정이하여신비율은 부실채권 정리 등으로 '16년 이후 개선추세 지속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	1.42	1.19	0.97	0.77	0.65
(시중은행)	(0.80)	(0.66)	(0.49)	(0.41)	(0.35)

- (자본적정성) 총자본비율 및 기본자본비율(기준비율 10.5% 및 8.5%)이 안정적인 수준 유지

자본적정성 지표 추이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총자본비율	14.81	15.24	15.41	15.26	16.03
기본자본비율	12.51	13.12	13.25	13.22	14.04

- (수익성) 당기순이익은 순이자마진 축소, 대손비용 증가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 유지

수익성 지표 추이

(단위 : 조원, %)

	FY'16	FY'17	FY'18	FY'19	FY'19.1~9월	FY'20.1~9월
당기순이익	2.5	11.2	15.6	13.9	12.1	10.3
순이자마진	1.55	1.63	1.67	1.56	1.59	1.43

나. 중소기업금융

◆ 저축은행 및 카드사는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호금융은 자산건전성이 소폭 악화

- (자산건전성) '20년중 저축은행·카드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하락하였으나, 상호금융은 상승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단위: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저축은행	7.20	5.12	5.05	4.71	4.66
상호금융	1.38	1.32	1.52	2.04	2.24
카드사	0.98	1.00	1.06	1.12	1.05

- (자본적정성) 저축은행, 상호금융 및 카드사 모두 자본비율이 최소 기준비율을 상회하는 등 양호한 수준

자본적정성^{주)} 지표 추이

(단위: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저축은행 (자기자본비율)	13.87	14.17	14.32	14.83	14.61
상호금융 (순자본비율)	7.74	7.80	8.09	8.10	8.18
카드사 (조정자기자본비율)	25.50	24.16	22.89	22.30	21.87

주) 기준비율은 저축은행 7%(총자산 1조원 이상 8%), 상호금융 2~5%, 카드사 8%

- (수익성) 저축은행·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상호금융은 이자손익 감소 등으로 소폭 감소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조원)

	FY'16	FY'17	FY'18	FY'19	FY'19.1-9월	FY'20.1~9월
저축은행	0.84	1.04	1.11	1.28	0.94	1.01
상호금융	1.79	2.10	2.56	2.17	2.42	2.38
카드사 ^{주)}	2.03	2.22	1.74	1.65	1.35	1.69

주) 카드사의 경우 IFRS 기준 당기순이익

다. 보 험

◆ 보험회사의 자산건전성, 자본적정성은 모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수익성은 저금리 등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

- **(자산건전성)** 생명·손해보험회사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16년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

고정이하여신비율 추이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전 체	0.56	0.45	0.27	0.17	0.15
생명보험	0.61	0.51	0.25	0.16	0.14
손해보험	0.44	0.33	0.32	0.19	0.15

- **(자본적정성)** 금리 하락에 따른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발생 등으로 지급여력비율은 양호한 수준 유지

지급여력비율 추이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전 체	236.5	257.9	261.2	269.0	283.9
생명보험	240.6	267.6	271.2	284.5	303.5
손해보험	227.9	238.6	242.4	240.1	247.7

- **(수익성)** 보험영업손익 악화 등으로 당기순이익은 감소추세였으나, 최근 자동차·장기보험 손실감소 등에 따라 소폭 증가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조원)

	FY'16	FY'17	FY'18	FY'19	FY'19.1~9월	FY'20.1~9월
전 체	5.89	7.86	7.28	5.34	5.25	5.57
생명보험	2.42	3.92	4.03	3.11	3.06	3.15
손해보험	3.47	3.94	3.25	2.22	2.20	2.42

라. 금융투자

◆ 증권사 및 자산운용의 자산규모가 지속 증가세인 가운데 자본적정성과 수익성은 전년(동기) 대비 개선

□ (총자산) 증권회사 총자산 및 자산운용사 수탁고는 증가세 지속

총자산 및 수탁고 추이

(단위 : 조원)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증권회사(총자산)	355.8	390.0	438.9	482.9	597.2
자산운용사(수탁고) ^{주)}	469.3	497.1	551.0	649.6	689.3

주) 설정원본 기준(금융투자협회)

□ (자본적정성) 증권회사 순자본비율(677.3%)은 기준비율(100%)을 크게 상회하고, 자산운용사 자기자본도 최소영업자본액*을 초과

* 자산운용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폐지 이후 신설('15.4월)된 적기시정조치 기준으로 '20.9월말 자기자본(6.9조원)은 최소영업자본액(1.1조원)을 5.8조원 초과

자본적정성 지표 추이

(단위 : %)

	'16년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증권회사 (순자본비율)	387.8	582.7	547.4	555.9	677.3

□ (수익성) 증권회사 순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하여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산운용사도 전년동기 대비 증가

당기순이익 추이

(단위 : 조원)

	FY'16	FY'17	FY'18	FY'19	FY19.1~9월	FY'20.1~9월
증권회사	2.13	3.81	4.17	4.89	3.84	4.51
자산운용사	0.61	0.61	0.59	0.85	0.66	0.89

2 금융시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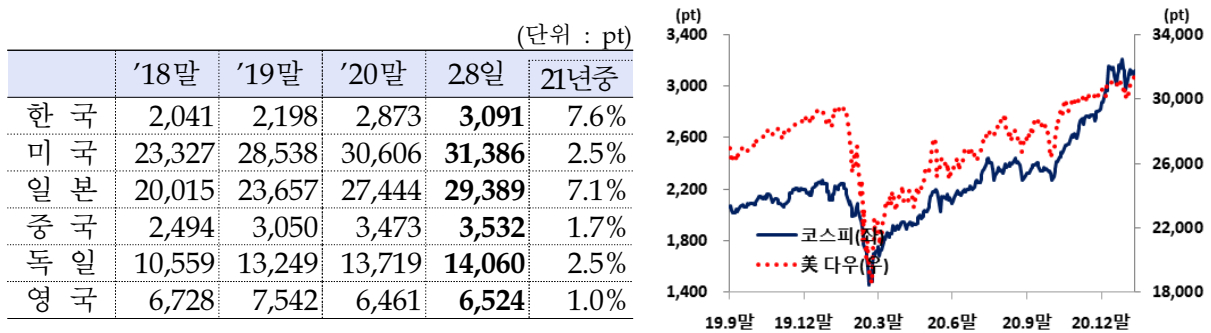
◆ 국내외 금융시장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급락하였다가 경기부양책 및 경제 재개 등으로 빠르게 회복

가. 주 가

- 국제 주가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일제히 급락하였다가 각국 경기부양책 및 백신개발 기대 등으로 빠르게 반등
- 국내 주가는 개인 유동성 등에 힘입어 연고점 기준 3,200선을 돌파(3,209pt, 1.25일)하였고, 주요국 중 상승률이 가장 높음*

* '20말 대비 상승률(2.8일 현재) : 韓 ↑ 7.6%, 美 ↑ 2.5%, 유럽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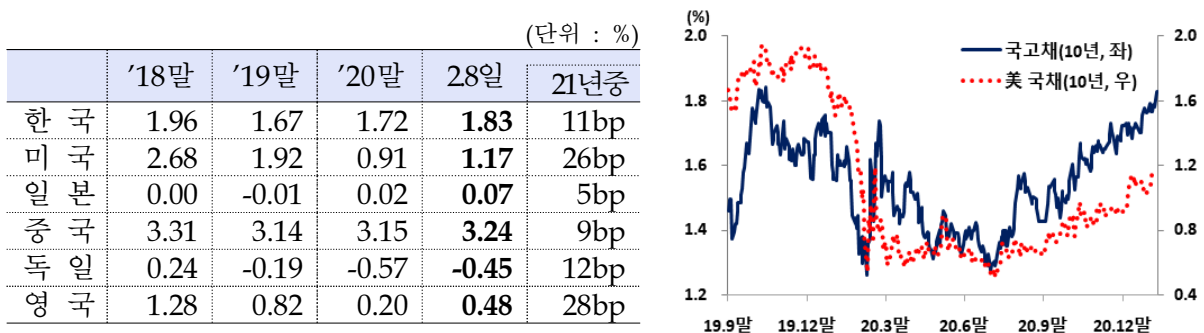
주가지수 추이



나. 금 리

- 주요국 금리는 코로나19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가, 연중 美 블루웨이브 현실화에 따른 부양책 기대 등으로 상승
- 국내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3.17일 ↓ 50bp, 5.28일 ↓ 25bp) 등으로 하락했으나,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장기물 중심 상승 추세

국채(10년물) 금리 추이



다. 환 율

- 美 달러화 가치는 백신 기대 등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로 약세를 지속하다가, 최근 유로존 더블딥 우려로 상대적 강세
- 원달러환율은 가파른 하락세를 지속하다가, 연초 이후 달러화 강세 및 외국인 주식 순매도 증가 등으로 상승 전환

환율 추이

(단위 : 원, 달러, 엔, 위안)

	'18말	'19말	'20말	28일	'21년중
원/달러	1,115.7	1,156.4	1,086.3	1,119.6	3.1%
달러인덱스	96.17	96.39	89.94	90.93	1.1%
엔/달러	109.6	108.6	103.3	105.2	1.9%
위안/달러	6.8785	6.9632	6.5267	6.4484	△1.2%
달러/유로	1.1471	1.1212	1.2215	1.2049	△1.4%
달러/파운드	1.2760	1.3261	1.3676	1.3740	0.5%



라. 외국인 국내 투자

- (주식) 외국인은 주가지수 단기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등의 영향으로 '20.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순매도 유지
- (채권) 우리나라의 양호한 대외건전성, 우수한 신용등급 대비 높은 금리 등으로 외국인 채권 순매수 기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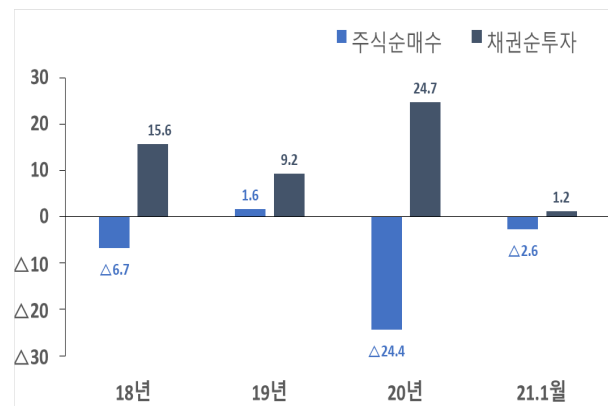
외국인 증권투자 추이

(단위 : 조원)

	'18년	'19년	'20년	'21년	1월
주식순매수 ¹⁾	△6.7	1.6	△24.4	△2.6	△2.6
채권순투자 ²⁾	15.6	9.2	24.7	1.2	1.2
순매수	50.9	54.4	73.9	3.8	3.8

주 1) 결제기준

2) 순투자 = 매수 - 매도 - 만기상환



Ⅲ.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2021년도 금융감독 기본 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정하고
 - ①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②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③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④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을 핵심과제로 구성

[금융감독 방향 및 주요 추진과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	
기본 목표	주요 추진과제
안전한 금융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공정한 금융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따뜻한 금융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다. 민원처리·분쟁조정 실적 제고
혁신하는 금융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가. 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1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금융안정

가 금융지원 지속 및 단계적 연착륙 도모

◆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하고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착륙 유도

1]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차질없는 이행

- 취약부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유도하되, 코로나19 장기화·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연장 여부 검토

- ① 만기연장·이자유예 프로그램에 따른 금융회사 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
* 금융지원 실적(2027.~21.18): 총 141.1조원(신규대출 51.5조원, 만기연장 79.4조원, 원리금상환유예 7.4조원)
- ②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관련 비율추이를 점검하여 건전성 관리와 균형 유지
* LCR규제 완화('21.3월말 종료), 예대율 유예('21.6월말 종료)
- ③ 코로나19 장기화 및 피해발생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금융지원 및 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의 재연장 여부 검토

- 일시적 금융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해 위기대응 컨설팅 및 자금난 해소 등 재기지원 활성화

- ① 자영업자의 수익회복을 돕고 필요시 사업정리재기를 지원하는 은행권의 위기관리 컨설팅 확대
- ② 카드사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상권분석을 통해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소비자의 성향·지역·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컨설팅 제공
- ③ 「개인사업자대출119」, 「신용대출119 프로그램」의 채무조정 실적 점검 등을 통해 지원 확대 유도

2]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최소화 등 연착륙 도모

- 금융지원 정상화시 절벽효과 등 충격방지를 위해 단계별 연착륙 방안을 마련하고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

- ① 코로나19 잠재부실 대비 연체율 모니터링, 자산건전성 분류 적정성 점검 등 상시감시 강화를 통해 연착륙 도모
- ② 시장안정화조치 종료시 단기금융시장·주식시장 충격 점검 및 대응방안 마련
- ③ 발행회사 신용등급 하락 등에 대비하여 회사채 시장 동향 및 만기상환 계획 집중 모니터링
- ④ 금융지원 정상화시 기업부실 증가에 대비하여 채권은행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

나 금융회사 건전성 확보

◆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복원력 유지**

1 코로나19 장기화 대비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 제고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차주의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금융회사 자금공급 기능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자본확충 지도**

- ① (은행)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에 따라 배당·자사주 매입 자제 등 자본확충 지도
- ② (중소) 위기상황분석을 통해 단계별 자본확충 등 전사적인 Action Plan 수립 유도
- ③ (보험) IFRS17 도입 등을 감안, 역마진·손해율 등 잠재리스크가 큰 회사에 대해 자구계획 이행 요구
- ④ (금투) 초대형 IB에 대해 강화된 자기자본비율(BIS비율) 도입 등 新자본규제체계 로드맵 마련

- 금융지원에 따른 부실이연 등에 대비하여 차주 신용등급·업종별 부실 발생 가능성 등을 분석·점검하고, **충당금 적립 강화 지도**

- 특히, 제2금융권에 대한 건전성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추진

- ① (은행) 예상손실 신용평가모형(IFRS9)의 감독상 활용도 제고방안 검토
- ② (중소) 신용평가시스템 고도화 자본규제 개선 등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규제 선진화
- ③ (보험) 프로젝트금융에 대한 新리스크평가 지표 도입, 유가증권 손상인식 적정성 점검

2 리스크 관리 고도화를 위한 감독 강화

- 금융지주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 **연결감독을 강화하고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 강화**

- ①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 도입
- ② 비은행 금융회사의 외화 조달·운용 모니터링 강화 및 외환건전성 규제 개선
 - *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우발적 외화수요 점검, 연결기준 외화유동성 규제비율 도입 등
- ③ 금융투자회사 및 여전사에 대한 유동성리스크 관리 강화
 - * (증권) 파생결합증권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 및 조정유동성 비율 관련 보고의무 강화 (여전) 유동성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자율규제) 시행, 리스크수준 평가체계 구축 및 공시 강화

다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체계적 대응

◆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확대된 유동성 및 가계·기업 부채증가 등 불안요인이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 대응

1 금융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상시감시 강화

○ 위험자산 동조현상 및 위기전이 가능성이 심화됨에 따라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 고도화

- ① 금융회사 및 자본시장을 포함한 쏠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하여 (FSS Hawkeye 시스템)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 선제 포착
- ② 리스크 대쉬보드 기능 확충, 新조기경보모형(K-SEEK) 적용범위를 증권부문으로 확대
- ③ 단기금융시장 경색으로 인한 시스템리스크 발생 가능성 분석·점검* 강화
* RP 시장 등 건전화 규제 운영실태 점검, MMF·개방형펀드 스트레스테스트 실시 등

○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 등 상시감시 효율화 추진

- ① 금융상품 제조·판매·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금융상품 정보입수 분석시스템 구축
- ② 예탁원 펀드넷을 활용한 사모펀드 자산대사 기능 강화 및 '펀드 데이터 통합관리 인프라' 구축
- ③ 금융지주 계열사간 거래에 대한 공시 강화 및 복합금융그룹 리스크 통합 모니터링 체계 구축

○ 모니터링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독기준 마련, 소비자경보 발령 및 현장검사 등 실시

* (예) 개인 투자자 직접 투자 확대에 따른 시장변동성 리스크에 대응하여 신용용자 개인공매도·예탁금기준 등에 대한 동태적 감독방안 마련·이행

2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 DSR 강화,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 설정 및 여신심사 고도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

- ① 차주 상환능력 위주의 대출관행 정착을 위해 DSR 강화를 중심으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 선진화 방안' 마련
- ②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중장기적으로 전체 차주의 채무상환능력(DSR 등)을 감안한 총량관리 방안 모색
- ③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별도의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구축하는 등 관련 리스크 심층 분석

○ 아울러, 코로나19 피해에 취약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자금 중개가 감소하지 않도록 관리방안 시행시 종합적으로 고려

③ 초저금리 지속에 따른 고위험자산 쓸림에 대응

- 대체투자에 대한 상시감시 및 내부통제 강화 지도 등 체계적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 점검

- ① 금융권역별 대체투자 현황 및 리스크 요인을 분석하고, 쏠금융권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상시감시체계 마련
- ② 대체투자 프로세스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모범규준 마련 및 이행현황 점검
* (보험·여전·상호) 대체투자 가이드라인 제정, (증권·자산운용) 모범규준 시행 및 이행 현황 점검
- ③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엄정한 가치평가를 지도하고, 필요시 스트레스테스트 (민감도분석)를 통해 개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력 점검
* 회계법인 결산감사시 자산건전성 분류 및 가치평가가 엄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④ 기업체질 개선 유도 및 구조조정 지원

- 코로나 이후 산업재편에 대비하여 취약업종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채무계열 등의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재편 유도

- ① 코로나 경제위기 이후 산업구조 재편, 업종별 차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취약 업종을 대상으로 산업분석을 실시
- ② 주채무계열 개선방안(시장성 차입 반영,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구조 평가 등)의 차질없는 시행을 통해 금융시장 영향력이 큰 대기업 그룹의 선제적인 재무구조 개선 유도
- ③ 기업 신용위험평가 및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코로나 이후 산업구조 재편에 대비

-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한계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금유입 유도

- ① 채권은행의 재무·사업전환 컨설팅 확대 유도 및 엄정한 신용위험 평가를 통한 구조적 부실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 추진
- ② 종투사의 신용공여 추가한도 적용대상에 재무구조개선기업 대출(예: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관련 대출) 및 M&A 리파이낸싱 대출을 추가
- ③ 구조조정 기업의 신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채권은행-자본시장(PEF 등)간 연결(매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2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가 금융소비자 중심의 영업행위 규율체계 정착

◆ 금소법 조기정착 및 거래질서 위반행위 집중점검을 통해 영업행위 질서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1 금소법 조기정착을 통한 영업행위 질서 확립

- 금소법 조기정착을 위해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의 금소법 준수를 위한 대응현황 점검

- ① 금소법 하위법령 제정 지원 및 시행세칙 제정 등 감독기반 마련
- ② 대출모집인·독립자문업자 등록,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청약철회권 확대 등 신규 도입·강화되는 제도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감독체제 구축
- ③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조직, 성과평가·보상구조, 6대 판매원칙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제 등 금소법 시행에 따른 대응현황을 점검하여 개선을 유도

2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엄정 대처

-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

- ①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과 관련하여 집중 점검·검사
* (예) 1) 고난도 금투상품 영업행위준칙(금투),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은행) 이행실태 점검
2) 전문사모 운용사에 대한 전수검사 지속
- ②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 ③ DLS발행 관련 공모규제 회피, 보험모집수수료 우회지급 등 규제회피행위 점검 강화

3 금융회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유도

-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소비자중심 문화가 조성되도록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 ①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담당임원(성명·직책)의 책임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도록 하는 방안 검토(영국·호주 등 해외사례 참고)
- ② 소비자중심 책임경영문화 조성 유도를 위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항목·기준 개편
* (예) 미스터리쇼핑 결과 및 고령층 보호 노력 등에 대해 평가 반영 확대 등
- ③ 소비자보호업무 등 핵심업무를 대상으로 금융지주회사 내부통제가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검토

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 ◆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의 규제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영업경쟁 및 담합 등 공정질서 저해요인 발굴·제거

1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규제 합리화

-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규제정비 지원

- ① 화상통화 및 챗봇 등을 활용한 新비대면 보험모집 허용방안 검토
- ②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혁신금융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 규제개선 가능성* 등 검토

* (예)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도 허용

-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과제 발굴 등 지원

- 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지털금융 협의회」 논의 등을 바탕으로 규제 개선 필요사항 등을 지속 발굴·개선
- ② 온라인 플랫폼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허용하되, 판매방식 등에 대한 新규율체계 마련

2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질서 확립

- 금융회사 규모·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금융회사 간의 과도한 영업경쟁 방지

- ① 지방은행에 시중은행과 차별화된 리스크평가·경영실태평가 기준 마련
- ②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상호금융업권간 상이한 규제차이* 해소
* 업권간 외부감사 요건 및 감사주기 일치 등
- ③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금고 입찰시 과도한 출연금 제공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 지속
- ④ GA채널 성장에 따라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GA 내부통제 평가제도 도입

- 금융시장에서의 담합 및 우월적 지위 남용 등에 적극 대응

- ① 지표금리 산정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금융거래지표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중요지표 산출기관 업무규정 및 지정요건 심사 수행 등)
- ② 외은지점의 장외파생상품 담합 등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 검사

다 신뢰받는 자본시장질서 확립

◆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공시정보 확대, 회계법인 감사 품질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믿고 투자하는 시장환경 조성

1 자본시장 공정기반 마련 및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 시장조성자의 불법공매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공매도 및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

- ① 증권회사의 시장조성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매도 업무의 적정성 검사
- ②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준 개선을 통해 투자자 정보제공 실효성 제고
- ③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용대주 제도를 개선하고 신용대주·공매도 관련 개인투자자 보호방안 마련

○ 테마주·주식리딩방·경영권변동 관련 불법행위 등 투자자 피해 취약부문에 대해 엄정 대처

- ① 이상 급등 테마주 및 대선 등 정치 테마주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②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 및 관계기관 공조 강화
- ③ 「무자본 M&A 추정기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지분공시 위반 중점 점검
- ④ 지능화되는 증권범죄에 대응하여 자본시장 특사경의 수사역량 강화

○ 불공정거래 과징금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과징금 산정체계를 마련하고 혐의입증을 위한 조사수단(현장조사·영치권) 확충 추진

2 공시·회계정보에 대한 신뢰성·접근성 제고

○ 인수업무·감사품질 등에 대한 평가체계 마련 및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해 공시·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

- ① 주관사 인수업무(Due-diligence)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 등 평가체계 확립
- ② 공모주 청약·배정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 및 공시 강화 추진
* 청약·배정내역 및 수수료 종류별 공시 확대 등
- ③ 감사품질 향상을 위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제도 마련 및 시행

○ 기업의 비재무정보 공시를 확대하고 회계법인 정보조회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투자자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

-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보 공시 확대 및 정기보고서에 투자위험요소 기재 의무화 전향적 검토
- ② 회계법인 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회계법인에 대한 시장 평가기능 제고
- ③ 투자자의 공시정보 활용 지원을 위해 금감원 홈페이지에 공시 관련 교육코너(공시아카데미)를 신설하고 사업보고서·M&A 공시 이해를 위한 해설서 발간·배포

3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가 위기 버팀목으로서의 금융안전망 확충

◆ 서민·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 확대를 통해 계층간 격차를 해소하고 자활·재기지원 강화 등으로 금융안전망 확충

1 격차 해소를 위한 금융접근성 확대

○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유도하고,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하여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포용방안 마련

- ① 취약계층을 위한 새희망홀씨 대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실적점검 및 지원 유도
- ② 인터넷전문은행의 중금리·중저신용자 대출 활성화 유도
- ③ 최고금리 인하(21.7월)에 대비하여 저신용차주에 대한 대출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출원가 절감 등을 유도하여 더 많은 저신용차주의 제도권 금융 이용을 지원
- ④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대출금리 합리화 지속 유도

○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필요한 맞춤형 금융상품·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은행 점포폐쇄에 대한 시장규율 강화

- ① 고령층·장애인 친화적 금융상품 개발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예) 장애인 여수신 업무처리매뉴얼 제정, 맞춤형 '동영상 상품설명서' 시범서비스 실시, 고령자를 위한 치매보험대리인청구제도 및 지정인알림서비스제도 안내·운영현황 점검 등
- ② 소방공무원 등 특수 직업군에 대한 보험가입 거절에 대해 인수기준 운영의 적정성을 점검·개선하고 재난 발생에 대비한 소상공인 휴업손실 보상상품 개발 지원
- ③ 지역재투자 평가시 은행 점포감소에 대한 감점 부여, 은행 점포 폐쇄·신설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대외 발표 및 경영공시 강화

2 자활·재기지원을 위한 금융안전망 확충

○ 채무조정제도 운영현황을 점검·개선하여 연체우려 채무자에 대한 적극적 사전지원 유도

- ① 워크아웃 등 금융회사의 사적 채무조정제도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 (예) 상호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제도 표준화 등
- ② 서민금융 지원제도 안내 책자 개정·발간 및 서민·소외계층 대상 홍보 강화

나 금융의 사회적 책임 제고

◆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역량강화를 통해 금융포용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상생을 위한 관계형·사회적금융 활성화

1 금융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

○ 자동차보험·실손보험 등 국민형 보험제도를 개선하고 공정한 보험금 지급관행 정착을 통해 보험의 사회적 기능 제고

- ①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보상기준 합리화 등)를 통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최소화 유도
- ② 과잉진료 억제 등 실손보험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하고,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보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 확대
- ③ 보험회사의 손해사정업자 선정·평가기준을 개선하고, 의료자문이 보험금 지급 거절에 악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는 등 보험금 지급관행 개선

○ 금융소비자에게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시키거나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관행 점검 및 개선

- ① 카드 연회비, DCC결제(국내카드 해외원화결제시 금액확인서비스) 수수료 등 고객부담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하고 합리적인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체계 마련을 지원
- ② 보험료(암보험 등)·수수료(금리연동형보험) 산출 적정성 및 실손보험 무사고 할인제도 운영실태 점검 강화

2 금융교육 및 정보제공 체계화

○ 금융교육 콘텐츠·강사 인증 및 맞춤형 교육 제공 등 금융교육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소비자에 유용한 정보제공 확대

- ① 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고, 비대면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금융교육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온라인 연수과정 개선을 확대
- ② 만기경과 금융재산 소비자 알림서비스를 도입하고 '숨은 금융재산 찾아주기'를 지속
- ③ 금융협회 비교공시시스템 및 상품설명서 개선, 퇴직연금 제도 소비자 안내·홍보 강화

3 관계형·사회적금융 활성화

○ 관계형 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사회적 금융 확대를 위해 관련 평가체계 점검 및 정보공유 활성화

- ① 관계형금융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지방은행과 협의체를 구축 및 간담회 개최를 추진하고 신협·신협연합회 지역 토착유망산업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유도
- ② 사회적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ESG 정보공유포털 구축 및 신평사 ESG 평가체계 점검
- ③ 사회적경제기업 평가시스템(신보) 및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신정원, 서금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한 금융지원을 유도

다 민원처리·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 민원처리·분쟁조정 서비스혁신을 통해 피해구제 실효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이후 성행하는 불법금융에 대한 근절 노력 강화

1 분쟁조정 효율성·공정성 제고를 위한 기반 마련

○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분조위 회부기준을 마련하고, 공정성 제고를 위해 의견진술권 보장

- ① 분조위를 통한 분쟁처리 확대를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예: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주는 경우) 분조위에 회부토록 기준 마련
- ② 쟁점이 복잡하거나 다수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은 사전간담회를 통해 논의 후 조정방향 결정
- ③ 분조위에 소비자측과 금융회사측 위원을 1인 이상 참석토록 하고, 허가절차 없이 분쟁당사자 참석 및 의견진술권을 보장

○ 환매연기 사모펀드 분쟁조정은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

- ① 라임 국내사모펀드에 대해 추정손해액 기준으로 분쟁조정 우선 실시
- ② 옵티머스 등 나머지 사모펀드는 검사·제재 결과를 바탕으로 외부법률자문 등을 거쳐 순차적으로 분쟁조정

2 민원서비스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 가능한 변화 추진

○ 민원·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추진

- ① 민원·분쟁조정 관련 제도·분석·조사기능 집중을 위해 관련 조직을 확대·재편하고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분쟁조정 담당부서 신설
- ② 민원 자율조정 우수 금융회사에 대해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지 인센티브를 부여
- ③ 모바일을 통해 민원 상담부터 신청까지 가능한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

3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척결 노력 강화

○ 불법금융 및 보험사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홍보·조사 등 종합적인 대응체계 강화

- ① 법정최고금리 인하 시점('21.7월) 전후 불법사금융 일제신고기간을 설정하고 합동신고처리반(신고접수-피해구조-법률지원) 운영
- ②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예방·피해구제 전반에 관한 대응매뉴얼 마련·배포
- ③ 실손보험·홀인원보험 허위청구 등 보험사기 취약분야 기획조사 실시

4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가 금융혁신 및 혁신성장 지원

- ◆ 디지털 금융혁신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한편, 혁신 성장을 위한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1 디지털 금융혁신 지원

- 신생 금융서비스업에 대한 인허가 심사를 적극 수행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지원 등을 통해 혁신금융 지원 내실화

- ① 신용조회업 세분화에 따른 전문CB, 데이터 전문기관, 마이데이터 사업자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의 신규진입 심사
- ② 보험 모집시 인공지능(AI), TTS(문자음성변환) 등 신기술 활용이 가능하도록 모집규제 선진화 추진
- ③ 기존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부가조건 준수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실시

2 금융의 디지털화 등에 따른 리스크 관리

- 디지털금융 확산, 전금법 개정,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 등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신종리스크 관리·감독 강화

- ①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금융인증서 보안기준, 비대면 실지명의 확인절차 등 마련
- ② 마이데이터 도입, 오픈뱅킹 확산 등 시스템간 상호연계성 증가에 따른 사이버 보안리스크 점검·대응 강화
- ③ 전자금융업자 신용리스크(소액 후불결제) 관리기준 마련 및 예탁금 분리보관 점검
- ④ 빅테크 금융진출시 우려되는 금융이용자 피해 및 시장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규율체계 확보

3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 유도

- ① 종투사의 모험자본 공급 현황 등을 평가하고 종투사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 ② 은행의 창업·벤처기업 등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중개기능 강화방안* 검토
* (예) 금융그룹 내 협업을 통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대출 활성화 유도 등

나 금융혁신을 선도하는 감독 강화

◆ 디지털 감독혁신을 통해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기후리스크에 대한 감독방안 마련

1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

- 셉테크(SupTech) 기반 조사·검사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권 레그테크(RegTech) 도입 지원 등 디지털기반 업무 혁신

- ① 셉테크 기반 불공정거래조사시스템 및 과거 검사정보를 집적·활용하는 검사 종합관리시스템 재개발 등 데이터중심 감독시스템 구축
- ② 금융감독 데이터의 공개 범위 확대 및 오픈API와 같이 쉽게 활용가능한 형태의 제공 검토 등 금융회사가 준법감시 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③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민원 이상징후 적시인지 및 소비자경보 발령체계 마련
- ④ 업무별로 분리되어 있는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합 홈페이지로 전면 개편
- ⑤ 법인 등기부등본 조회 등 단순·반복업무에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 도입

2 기후금융 감독체계 마련

- 전담조직 설치, 민관협력 연구 등을 통해 기후·환경리스크 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해외기관과의 공조 강화

- ① 기후리스크 전담 대응팀 신설 및 민관협력 프로젝트(Frontier 1.5D) 실시
- ② 기후변화 스트레스테스트모형 개발·운용, 기후리스크 노출도 분석지표 마련 등 영향분석을 체계화하고, 기후리스크 관리·감독방안 마련 추진
- ③ NGFS 연내 가입, 녹색금융 TF('20.8월 민관 합동) 참여 등을 통해 기후리스크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 ④ 녹색채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채권의 평가 및 인증, 사후관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공시체계 검토

3 금융감독의 글로벌 역량 강화

- 주요국 감독당국과 상호교류를 활발히 하고, 국내 금융회사 해외진출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정비

- ① 신남방·신북방 감독당국 등과의 협의채널 확대, 감독자협의체(supervisory college) 개최 등 주요국 감독당국과의 협업·교류 강화
- ② 재보험업의 미국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NAIC 적격국가 인증 평가업무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신고 절차 등 규제 정비

다 금융감독의 신뢰 제고

◆ 공직기강을 재확립하고 검사·제재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금융감독의 신뢰성 제고 노력 지속

1 청렴·윤리 실천 및 복무기강 재점검

○ 조직 내부쇄신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청렴성 확보

- ① 임직원 비위행위 차단을 위한 내부고발(Whistle blower) 제도 활성화
- ② 외부인(퇴직자 포함) 접촉 관련 위규 발생 예방을 위한 규제 정비
- ③ 문서보안절차 강화, 재택근무 복무지침 정비 등 복무기강 재점검

2 검사·제재 프로세스 합리화

○ 효율적 검사운영을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검사품질을 제고하는 한편, 제재 양정의 합리화 추진

- ① 외부기관에 의한 검사품질 점검 실시(자체점검 병행), 수검회사 애로사항 청취 및 검사원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검사품질 제고 유도
- ② 유인부합적 검사 활성화를 위해 금융회사와 협업 프로세스 구축 강화
(예) 주요이슈 등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점검 → 점검결과 평가 → 금감원 검사
- ③ 과태료 감면사유의 구체화를 통해 과태료 부과 예측 가능성·수용성 제고
- ④ 금융회사의 다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비례성 강화를 위해 경합가중제도 개선
- ⑤ 준법교육제도 등 선진적 대체 조치수단과 혁신금융 업무 관련 면책제도 등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노력을 강화(21.상반기중 설명회 개최)

3 조직 운영 효율화 및 역량 강화

○ 예산·조직 관리 강화 등 경영효율화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전문감독관 확충 등 직원 전문성 제고

- ① 상위직급 감축, 해외사무소 정비 등 경영효율화 방안의 차질없는 이행
- ②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추세에 부응하고 신규감독 수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조직 구현*
* 금융소비자보호처 기능 재편, 디지털금융 감독·검사체계 확립 등 조직개편 실시(21.1월)
- ③ 검사·조사·리스크관리 등 전문직무에 대한 전문감독관 확충

【 참고 자료 】

I. 주요 금융통계 27

II. 집행간부 명단 36

I. 주요 금융통계

1. 수신 현황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국내은행	은행계정 ¹⁾ (A)	1,669.5	1,778.6	1,904.8	2,098.4
	(원화예수금)	1,364.0	1,456.5	1,590.8	1,725.2
	<요구불>	191.9	201.5	225.8	285.2
	<저축성>	1,161.3	1,243.9	1,352.2	1,427.4
	(시장성수신) ²⁾	305.4	322.1	314.0	373.2
	<CD>	33.5	38.8	30.2	27.2
	<RP>	△30.0	△40.3	△50.6	△21.7
	<은행채>	301.9	323.6	334.5	367.7
	신탁계정(B)	201.7	237.7	258.0	269.8
	(특정신탁)	95.5	116.6	120.3	128.2
	합계(A+B)	1,871.2	2,016.3	2,162.8	2,368.2
자산운용사 ³⁾	주식형	77.9	85.2	87.7	71.1
	채권형	95.3	101.8	117.5	115.9
	MMF	97.3	89.6	104.9	134.2
	부동산	59.8	75.5	98.3	107.1
	기타 ⁴⁾	166.8	198.9	241.2	261.0
	합계	497.1	551.0	649.6	689.3
종금 ⁵⁾	자발어음	8.7	9.0	8.9	10.4
	CMA	4.9	5.3	5.1	5.1
	합계	13.6	14.3	14.0	15.5
증권	고객예수금	40.2	39.6	43.1	77.7
	RP ⁶⁾	65.4	61.0	67.6	87.3
	합계	105.6	100.6	110.7	165.0

- 주 : 1) 원화예수금, 시장성수신의 합계
 2) CD, RP순매도, 원화발행금융채권의 합계
 3) 설정원본 기준(금융투자협회)
 4) 혼합형, 파생상품, 실물, 재간접, 특별자산
 5) 은행 및 메리츠종금증권의 합병종금 계정 포함
 6) 대고객RP 금액

2. 증권시장 주요지표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년말
- 상장회사수(社)	2,194	2,264	2,355	2,411
▪ 유가증권시장	774	788	799	800
▪ 코스닥시장	1,266	1,323	1,405	1,468
▪ 코넥스시장	154	153	151	143
- 외감대상법인수(社)	29,263	31,473	32,431	31,744
- 시가총액(조원)	1,893.4	1,578.5	1,722.6	2,371.7
▪ 유가증권시장	1,605.8	1,344.0	1,475.9	1,980.5
▪ 코스닥시장	282.7	228.2	241.4	385.6
▪ 코넥스시장	4.9	6.3	5.3	5.6
- 주가지수(포인트)				
▪ 유가증권시장	2,467.5	2,041.0	2,197.7	2,873.5
▪ 코스닥시장	798.4	675.7	669.8	968.4
- 일평균거래대금(억원) ¹⁾	90,143	114,742	92,992	230,157
▪ 유가증권시장	53,258	65,486	49,898	122,004
▪ 코스닥시장	36,885	49,256	43,094	108,153
- 자금조달실적(조원) ²⁾	154.4	169.8	175.5	194.5
○ 기업공개(조원)	5.9	2.3	2.5	3.8
▪ 유가증권시장	2.8	0.6	0.4	1.7
▪ 코스닥시장	3.1	1.7	2.1	2.1
▪ 코넥스시장	0.0	0.0	0.0	0.0
○ 유상증자(조원)	4.5	6.6	2.8	7.1
▪ 유가증권시장	2.9	4.7	1.7	4.7
▪ 코스닥시장	1.5	1.5	1.0	1.4
▪ 코넥스시장	0.0	0.0	0.0	0.0
▪ 비상장법인	0.1	0.4	0.1	1.0
○ 회사채(조원)	144.0	160.9	170.2	183.6
- 외국인 주식투자등록(명)	44,931	46,700	48,058	49,256
- 외국인 상장주식 보유잔고(조원)	633.8	506.0	587.3	760.6
▪ 유가증권시장	596.5	480.6	561.9	722.2
▪ 코스닥시장	37.3	25.4	25.4	38.4
-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잔고(조원)	98.5	113.8	123.7	150.1
▪ 국채	78.3	86.6	98.5	121.8
▪ 통안채	19.5	26.2	24.3	23.1

주: 1) 일평균 거래대금은 연중 일평균 기준

2) 자금조달 실적은 연중 누계 기준('20.8월은 잠정 수치로 누계)

3. 자본금 현황

1) 은행

(단위 : 억원)

	납 입 자 본 금 ^{주)}			자 기 자 본 ^{주)}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신 한	79,281	79,281	-	248,121	260,560	12,439
우 리	33,814	35,814	2,000	215,191	227,855	12,665
S C	13,130	13,130	-	45,396	46,142	747
하 나	53,596	53,596	-	246,806	257,820	11,015
한국씨티	15,914	15,914	-	61,625	62,942	1,318
국 민	20,219	20,219	-	284,881	294,359	9,478
시중은행(A)	215,954	217,954	2,000	1,102,018	1,149,679	47,661
대 구	6,806	6,806	-	44,615	45,647	1,032
부 산	9,774	9,774	-	52,209	52,550	341
광 주	2,566	2,566	-	17,919	19,045	1,126
제 주	1,606	1,606	-	4,926	5,106	181
전 북	4,616	4,616	-	13,846	14,315	469
경 남	4,321	4,321	-	34,074	34,249	175
지방은행(B)	29,690	29,690	-	167,590	170,913	3,324
케이뱅크	5,051	9,017	3,966	2,321	5,240	2,920
카카오뱅크	13,000	18,255	5,255	11,652	17,807	6,155
인터넷은행(C)	18,051	27,271	9,220	13,973	23,047	9,075
일반은행 (D=A+B+C)	263,694	274,915	11,220	1,283,580	1,343,639	60,059
산 업	186,631	207,657	21,026	258,703	290,072	31,368
기 업	33,756	41,832	8,075	214,950	235,502	20,553
수출입	118,711	124,495	5,783	138,807	146,287	7,480
농 협	21,622	21,622	-	165,716	171,720	6,003
수 협	6,919	6,919	-	28,872	32,161	3,289
특수은행(E)	367,640	402,524	34,885	807,049	875,742	68,693
국내은행 (F=D+E)	631,334	677,439	46,105	2,090,629	2,219,381	128,752

주) 은행 계정 B/S상 자본금 및 자기자본

2) 중소기업금융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상호저축은행	43,145	43,020	△125	87,036	99,474	12,438
신용카드	51,481	51,481	-	272,001	285,207	13,206
할부금융	26,697	27,937	1,240	109,272	119,085	9,813
리스	25,052	27,401	2,349	92,133	105,370	13,237
신기술금융	15,474	18,101	2,627	35,205	41,938	6,733
종합금융회사	3,371	4,371	1,000	3,514	5,287	1,773
신용협동조합	52,787	57,588	4,801	78,622	86,567	7,945
농·수산업조합	133,687	142,138	8,451	318,361	336,472	18,111
합 계	351,694	372,037	20,343	996,144	1,079,400	83,256

3) 증권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84,519	189,418	4,899	600,032	664,376	64,344

4) 자산운용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22,646	29,157	6,511	67,360	87,398	20,038

5) 보험회사

(단위 : 억원)

	납입자본금			자기자본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생명보험	111,728	113,040	1,313	884,064	953,962	69,898
손해보험	29,118	34,011	4,892	442,002	464,004	22,002
합 계	140,846	147,051	6,205	1,326,067	1,417,966	91,899

4. 총자산 현황

1) 은행¹⁾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신 한	357.9	398.0	453.7	478.6
우 리	337.9	367.9	390.1	410.8
S C	62.7	68.0	70.8	85.2
하 나	357.7	389.5	421.3	434.9
한국씨티	65.0	65.6	68.6	76.2
국 민	369.6	400.6	434.2	477.1
시중은행(A)	1,550.8	1,689.6	1,838.7	1,962.9
대 구	58.7	58.9	63.2	66.5
부 산	57.1	65.8	70.6	73.3
광 주	27.2	27.0	27.6	31.1
제 주	5.7	6.2	6.3	6.6
전 북	17.7	17.7	17.5	18.9
경 남	43.9	45.4	48.3	50.4
지방은행(B)	210.3	221.0	233.6	246.8
케이뱅크	1.4	2.2	2.6	3.3
카카오뱅크	5.8	12.1	22.7	25.2
인터넷은행(C)	7.2	14.3	25.3	28.4
일반은행 (D=A+B+C)	1,768.3	1,924.9	2,097.6	2,238.1
산 업	246.1	241.6	252.9	296.6
기 업	307.9	321.0	344.6	374.5
수출입	83.9	89.8	92.3	104.5
농 협	294.9	315.1	332.2	371.0
수 협	36.4	42.6	47.6	51.8
특수은행(E)	969.4	1,010.1	1,069.6	1,198.3
국내은행 (F=E+D)	2,737.7	2,935.0	3,167.2	3,436.4
외은지점(G)	239.3	236.7	248.4	301.9
은행계(F+G)	2,977.0	3,171.7	3,415.6	3,738.3

주 : 1) 총자산 = 은행계정 총자산 + 신탁계정 총자산 + 종금계정 총자산 - 계정 간 상호거래

2) 중소·서민금융회사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상호저축은행	59.7	69.5	77.2	85.3
신용카드	113.9	123.1	130.2	140.2
할부금융	67.1	72.3	80.1	85.2
리스	54.2	58.6	65.4	72.0
신기술금융	9.8	12.7	16.2	17.8
종합금융회사	1.9	2.6	3.3	4.3
신용협동조합	82.1	90.9	102.5	108.7
농·수산업조합	390.4	415.0	443.6	465.7
합 계	779.1	844.7	918.2	979.2

3) 증권회사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390.0	438.9	482.9	597.2

4) 선물회사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3.3	4.6	3.2	4.8

5) 자산운용회사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7.1	7.6	9.4	10.8

6) 보험회사

(단위 : 조원)

	'17년말	'18년말	'19년말	'20.9월말
생명보험	832.8	857.2	918.2	954.5
손해보험	277.2	298.0	320.7	337.1
합 계	1,110.0	1,155.2	1,238.9	1,291.6

5. 여신 현황

1) 은행

(단위 : 조원)

	총여신 ¹⁾			고정이하여신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신 한	249.4	272.0	22.6	1.3	1.1	△0.2
우 리	248.2	259.8	11.6	1.0	0.9	△0.1
S C	39.9	45.1	5.2	0.2	0.2	△0.1
하 나	246.6	268.2	21.5	1.0	0.9	△0.1
한국씨티	22.8	23.9	1.2	0.2	0.2	△0.0
국 민	280.0	312.7	32.7	1.1	1.0	△0.2
시중은행(A)	1,087.0	1,181.7	94.7	4.8	4.2	△0.6
대 구	39.2	44.0	4.8	0.3	0.3	△0.0
부 산	43.3	45.4	2.2	0.4	0.4	△0.0
광 주	17.9	20.6	2.8	0.1	0.1	△0.0
제 주	4.9	5.4	0.5	-	0.0	0.0
전 북	13.6	14.6	1.0	0.1	0.1	0.0
경 남	31.2	33.2	2.0	0.4	0.3	△0.1
지방은행(B)	150.1	163.3	13.2	1.3	1.2	△0.1
케이뱅크	1.5	2.1	0.6	-	0.0	0.0
카카오뱅크	13.6	18.7	5.2	-	0.0	0.0
인터넷은행(C)	15.1	20.8	5.8	-	0.1	0.0
일반은행 (D=A+B+C)	1,252.1	1,365.8	113.7	6.2	5.5	△0.7
산 업	125.3	145.4	20.1	3.6	3.3	△0.3
기 업	218.4	243.2	24.8	3.0	2.7	△0.3
수출입	107.1	109.3	2.2	2.2	1.4	△0.8
농 협	224.2	249.7	25.5	1.7	1.0	△0.7
수 협	32.6	35.3	2.7	0.2	0.2	△0.0
특수은행(E)	707.6	782.9	75.3	10.7	8.6	△2.1
국내은행 (F=D+E)	1,959.7	2,148.7	189.0	16.8	14.1	△2.7
외은지점(G)	77.2	73.8	△3.4	0.2	0.4	0.2
은행계(F+G)	2,036.9	2,222.5	185.6	17.0	14.4	△2.6

주: 1)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은행계정+신탁계정+종금계정)

2) 중소기업금융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상호저축은행 ¹⁾	626,073	732,301	106,228	31,927	34,151	2,224
신용카드 ²⁾	1,165,838	1,264,821	98,983	13,871	13,436	△435
할부금융 ²⁾	707,003	766,386	59,383	17,619	17,803	184
리스 ²⁾	542,607	612,059	69,452	10,003	9,415	△588
신기술금융 ²⁾	93,724	110,595	16,871	999	874	△125
종합금융회사 ³⁾	19,091	24,694	5,603	104	78	△26
신용협동조합 ⁴⁾	696,240	761,356	65,116	21,229	26,850	5,621
농수산림조합 ⁴⁾	2,905,334	3,139,608	234,274	56,083	60,649	4,566
합 계	6,755,910	7,411,820	655,910	151,835	163,256	11,421

주 : 1) 여신 합계(대출채권+할부금융+지급보증)

2) 총채권 등(건전성 분류대상 자산-유가증권-비여신성 신기술자산-신용카드약정-미수이자)

3) 무수익여신 산정대상 여신 합계

4)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중 대출채권+여신성가지급금

3) 증권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			고정이하여신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510,659	612,965	102,306	9,600	12,282	2,682

4) 보험회사

(단위 : 억원)

	총여신 ¹⁾			고정이하여신		
	'19.9월말	'20.9월말	증 감	'19.9월말	'20.9월말	증 감
생명보험	1,557,328	1,668,547	111,219	2,491	2,399	△92
손해보험	735,418	789,823	54,405	1,968	1,202	△766
합 계	2,292,746	2,458,371	165,625	4,459	3,601	△858

주 : 1)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중 대출채권

6. 인원 및 점포 현황

(단위 : 개, 명)

		점 포 수 ¹⁾			종 사 자 수 ²⁾		
		'19년말	'20.9월말	증 감	'19년말	'20.6월말	증 감
은행	일반은행	4,838	4,692	△146	82,645	81,900	△745
	특수은행	2,066	2,057	△9	36,966	37,162	196
	국내은행	6,904	6,749	△155	119,611	119,062	△549
	외은지점	45	45	-	3,071	3,046	△25
	소 계	6,949	6,794	△155	122,682	122,108	△574
증권회사		1,091	1,048	△43	37,486	37,524	+38
자산운용회사		348	387	39	9,546	10,097	551
보험	생명보험	3,017	2,945	△72	25,362	25,421	59
	손해보험	2,891	2,899	8	34,400	33,705	△695
	소 계	5,908	5,844	△64	59,762	59,126	△636
상호저축은행 ³⁾		273	273	0	9,497	9,631	134
여 신 전 문 ⁴⁾	신용카드	227	200	△27	12,279	12,228	△51
	할부금융	281	267	△14	5,861	5,749	△112
	리 스	174	168	△6	4,383	4,349	△34
	신기술금융	78	81	3	1,175	1,219	44
	소 계	760	716	△44	23,698	23,545	△153
종합금융회사		5	5	-	98	105	7
신용협동조합 ³⁾		883	881	△2	17,481	17,575	94
농·수 산림조합 ³⁾		1,345	1,346	1	108,619	108,605	△14
합 계		17,562	17,294	△268	388,869	388,316	△553

주 : 1) 본점(1개로 취급), 해외지점, 해외현지법인, 해외사무소 포함

2) 임직원 합계(직접 고용 비정규직 직원 포함, 용역·파견 제외), 해외인원 포함

3) 조합 수 기준, 저축은행의 경우 출장소는 점포 수에서 제외

4) '20.6월말 기준, 신용카드는 전업카드사 기준

II. 집행간부 등 명단 (21.2.17. 현재)

직 위	성 명	전화번호(사무실)
원 장	윤 석 헌	3145-5001
감 사	김 우 찬	3145-6001
수 석 부 원 장	김 근 익	3145-5003
부 원 장	최 성 일	3145-5005
부 원 장	김 도 인	3145-5007
부 원 장	김 은 경	3145-5009
부 원 장 보	김 종 민	3145-5031
부 원 장 보	김 동 성	3145-5021
부 원 장 보	박 상 욱	3145-5029
부 원 장 보	이 진 석	3145-5027
부 원 장 보	이 성 재	3145-5037
부 원 장 보	김 동 회	3145-5035
부 원 장 보	장 준 경	3145-5033
부 원 장 보	조 영 익	3145-5023
부 원 장 보	김 철 응	3145-5025
전문심의위원	장 석 일	3145-5039